



죽비와 목탁

이냐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기부에 인색한 대기업들

경인년 새해부터 닦친 한파에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혹독한 겨울 나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인지 해마다 이맘때면 불우이웃돕기 행사가 활발히 펼쳐져 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2008년 목표액 보다 11억원 많은 돈이 모여 희망 모금액이 처음으로 2000억 원을 돌파했다. 현재까지는 최대액수. 미국 발 금융위기로 경기한파가 몰아친 때의 모금액이 사상 최대액수라니 놀랍지 않은가?

2009년 한국 경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금융위기의 악몽에서 벗어났다. 연초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비판적인 전망에서 시작된 한국 경제는 2·4분기와 3·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각각 2.6%, 3.2%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내년 5% 내외의 성장률을 예상하며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기부금 형편은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한다.

2008년보다 경제사정이 좋아진 지난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2월 1~22일 927억원을 모금했다. 모두가 경제위기로 어려워하던 2008년의 1006억원

보다 79억원 적은 금액이었다.

이 같은 결과에는 대기업들의 불우이웃돕기나 사내의 복지금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 작년보다 급감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재벌닷컴이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의 분기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2009년 9월 까지 지출한 기부금 총액은 4439억원으로 2008년 같은 기간의 7242억원 보다 38.7% 감소 금액으로는 2803억원 줄어 들었다. 같은 기간 조사대상 대기업의 순이익은 26조 166억원에서 26조 9652억원으로 평균 3.6%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매출 상위 100대 기업 가운데 작년보다 기부금이 늘어난 곳은 38개사에 그쳤고, 기부금을 줄인 곳은 62개사에 달해 상당수 대기업이 기부에 인색했다는 결과다.

불가에는 '빈자일등(貧者一燈)'의 우화가 전한다. 물질의 다과(多寡)보다는 그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갖고 있으면서도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는 것은 자비의 등 하나, 자혜의 촛불마저 꺼지 않는 것과 비교되는 일 아닐까? 겨울은 가고 반드시 봄은 온다. 2010년에는 기업과 개인 모두 365일을 하루 같이 여여하게 이웃을 돌아보는 습관을 길러보면 어떨까?

현대불교로 최상의 공양 法 보시를...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바르게 설하고 설명하고 고찰하며 바른 법을 온전히 지키는 법공양(法供養)이 가장 수승한 공양이라 하셨습니다. 한 정(恒)의 '현대불교'를 이웃과 어려운 이들에게 법보시하는 것은 다함께 깨달은 세상을 만드는 형상 없는 불사(佛事)가 될 것입니다.

▶ 법보시 대상 군법당, 병원, 교도소, 각급 학교 및 공공 도서관, 관공서
▶ 법보시 후원 안내 법보시는 1구좌 1000원 이상 월 구좌로는 5000원
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문의 (02)2004-8200

중앙선관위원장 월운 스님

태고종, 기관장·실장직 인사 단행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은 12월 28일 중앙선관위원장 월운 스님을 비롯한 전문종무기관장 및 총무원 실장직 인사를 단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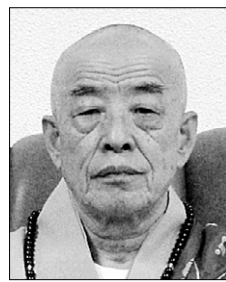
전통문화전승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임명식에서는 중앙선관위원장에 월운 스님, 중앙교육원장에 보경 스님, 중앙포교원장에 백은 스님, 종무조정실장에 청광 스님이 각각 임명됐다.

총무원장 인곡 스님은 임명식에서 "이번 인선은 개인 실무 역량과 애증심 등을 고려했다"고 밝히고, 경인년 새해를 맞이해 종도단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월운 스님은 화봉 스님을 은사로 득도, 관음사에서 사미계를 수지했으며, 묵담 스님을 계사로 봉원사에서 대승계를 수지했다.

대원불교대 졸업 후 동국대 불교대학원 수료했다. 한국불교신문사 사장, 제9대 중앙종회의원, 종단제도개혁위원회 상임위원, 중앙사정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중앙교육원장 보경 스님은 인공 스님을 은사로 득도, 법륜사에서 사미계를 수지했다. 정암 스님을 계사



중앙선관위원장 월운 스님



중앙교육원장 보경 스님



중앙포교원장 백은 스님

로 법륜사에서 대승계를 수지한 이후 법륜사 사집과, 선암사불교전문교육원 사교과, 대교과를 졸업했다.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수료 후 법륜사 불교전문강원 강사, 총무원 교무부장, 경기동부교구 총무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정수원 부원장, 법륜사 주지, 보덕사 비구니강원장, 중앙승가전문강원장, 부총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법륜승가대학장을 맡고 있다.

중앙포교원장 백은 스님은 동산 스님을 은사로 득도, 수덕사에서 사미계 수지했다. 해암 스님을 계사로 수덕사에서 대승계 수지했으며 통도사 사집과, 동화사 사교·대교과 수료했다. 이후 동방불교대학을 졸업,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사회복지

학과를 수료했다. 태고종 연수부장, 춘천불교사암연합회장, 석왕사 주지, 강원불교대학장, 삼장불학원장, 총무원 사회·교무·기획부장, 교무관리실장, 종무조정실장, 종정예경실장, 제 8.10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강원교구 총무원장이다.

종무조정실장 청광 스님은 혜초 스님을 은사로 득도, 사미계를 수지했다. 덕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은 영남대학교 졸업, 중앙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사회복지학 문학석사, 동방대학원대학교 자연치유학 박사과정을 거쳤다. 현재 제12대 중앙종회의원, 종단제도개혁위원회 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쌍계사 법광·화엄사 우석 스님 선출

조계종 제14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서

조계종 제14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제13교구 쌍계사 종회의원에 법광 스님, 19교구 화엄사 종회의원에 우석 스님이 각각 선출됐다.

우석 스님은 1992년 9월 8일 통도사에서 청하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했으며 1996년 10월 27일 통도사에서 청하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했다. 은사는 종삼 스님.

동국대 선학과 졸업한 후 한려대학원 사회복지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향일암 총무, 동여수노인복지관 관장 역임했으며 현재 사성암 주지, 화엄사 재무국장을 맡고 있다.

이암 스님(법광 스님)은 1972년 3월 15일 법어사 석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1975년 7월 15일 해인

사 고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했다. 은사 스님은 고산 스님이다. 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 전공했으며 해인승가대 졸업했다. 총무원 사회국장, 제13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화방복지원 이사장, 화방사 주지를 맡고 있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는 제33대 집행부에 입각한 영담 스님(총무부장)과 덕문 스님(호법부장)의 후임으로 각 본사는 단독 출마로 별도 투표과정 없이 당선을 확정했다.

남은 4석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 교육원장 현승 스님, 기획실장 원담 스님이 있었던 직능직 3석과 법어사 1석으로 직능직 1월 8일 열리며 법어사 보궐선거는 1월 11일 진행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용산참사 해결 환영"

조계종 논평

불교계를 비롯해 종교계가 사태 해결을 위해 앞장선 용산참사 문제가 현안 발생 345일 만에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됐다.

서울시의 "용산4구역 철거 현장 화재 참사에 대한 협상이 타결됐다"는 발표와 관련,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구립 30일 용산참사 원만해결을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조계종 대변인 원담 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은 논평을 통해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취임 첫 행보로 참사현장을 방문해 원만한 해결을 발원한 바 있다"며 "우리 종단은 앞으로도 소통과 화합의 정신으로 국민의 상생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주 기자

송년법회서 6000만원 보시

신흥사, 어려운 이웃에 자비의 손길

조계종 제3교구본사 속초 신흥사(주지 우송)가 연말 속초지역 소년소녀 가장 등 어려운 이웃에게 다시금 자비의 손길을 펼쳐 눈길을 끈다.

신흥사는 구립 28일 속초 마레몬스 호텔에서 지역 신행단체 및 자원봉사·지원회 등이 참석한 '자비 나눔 송년 대법회'를 봉행하고 소년소녀 가장 등에게 6000만원 상당의 쌀과 월동비, 부식 등을 전달했다.

이날 신흥사는 소년소녀 가장 100명에게 쌀 30kg과 부식, 생활비를,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빈곤 가정 40가구에 쌀 30kg과 부식, 생활비를 각각 전달했다. 이번 자비 나눔 대법회를 통해 전달된 성금과 쌀은 신흥사 교구 본말사 신도들을 비롯해 자원봉사자, 속초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한 바자회에서 모금된 것으로 총 6000여 만원 상당이다.

신흥사는 지난 6일 우송 스님의 주지 취임식을 지역 이웃을 돕는 자비 나눔 행사로 봉행했으며, 지난 9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이 박기현 속초시노인복지회관 부장에게 3000만원 상당의 물품 기탁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월에도 추석을 맞아 자비 나눔 대법회를 열고 독거노인 등에게 5000여 만원 상당의 물품들 전달한 바 있다.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은 이날 법어를 통해 "이웃의 어려움을 보면 기꺼이 찾아가 도와주는 불정자우(不請之友: 청하지 않았는데도 찾아와 벗이 되어 주는 친구)가 되자"며 "경인년 새해에도 나와 이웃이 하나 되는 동체대비의 해가 되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자비 나눔 대법회에는 주지 우송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3교구 말사 주지스님 등 지역 스님들, 자원봉사자, 복지법인 직원, 후원자, 채용생 속초시장과 최홍길 전 강원도 정무부지사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운집했다.

노덕현 기자

9개 기관에 선재의 선물 400개

아름다운동행 구립 29일 전달식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의 2009년 하반기 자비나눔사업인 '선재의 선물 보내기' 캠페인을 회향하는 선물 전달식이 구립 29일 조계종 총무원 1층 로비에서 진행됐다.

이날 마련한 '선재의 선물'은 송암보육원, 선재동자원, 해명보육원, 세립주택모자원, 마아원, 달마학교, 상계동공부방, 선해방과후교실, 월곡청소년공부방 등 9개 기관에 총 400개의 박스가 전달됐다. '선재의 선물'에는 회계사, 동화사, 전등사, 흥국사, 교계언론기자

등 50여 단체와 아름다운동행 홍보대사 배상문(프로골퍼), 한명로씨를 비롯한 전국 각지 100여 명이 동참해 약 5241만원을 모았다. 선물은 기부자들의 마음과 화합해 전국 2000여 명(1억원 상당)의 아이들에게 전달됐다.



배상문 프로골퍼가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박선주 기자

자비나눔은행 쌀 나눠

직지사복지재단 구미지부 자비나눔은행(이사장 성웅)은 구립 28일 구미시 원평동 사무실에서 연말연시 쌀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 9월 설립된 자비나눔은행은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저소득계층, 농아인협회, 외국인 노동자 등 124가구에 쌀 2000kg을 전달했다. 상임이사 법등 스님은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이웃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054)444-0408 이냐은 기자